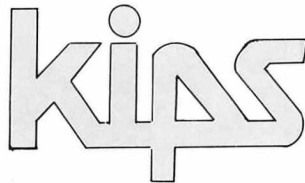


# 킵스



▲ 洪承采 사장



사회의 하부구조로서 통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전자제품은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통신의 기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정보기기도 역시 단순 데이터 처리 기능으로서만은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통신의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금융기관 온라인으로부터 국가기간전산망, 근거리통신망, 부가가치통신망 등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컴퓨터 업체들의 사업구상도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변모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업체 가운데 하나가 킵스·킵스는 그동안 온라인 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올 해부터는 부가가치통신망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78년 미국 MDS사와의 인연을 계기로 시작된 킵스의 온라인 메인프레임 사업은 80년 텐던 논스톱 시스템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84년부터

는 은행용 단말기인 피너클 기종을 추가하게 되면서 메인프레임에서 단말기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아성을 쌓았다.

MDS 메인프레임은 84년 이 회사와 관계를 끊기까지 1천여 시스템을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했고, 텐던은 노동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비롯하여 각 기관 및 업체에 지난 연말 현재 중앙처리장치 1백여 대를 공급하였다. 은행용 단말기 또한 시중 은행 및 체신부 등에 2천 5백대를 보급했다.

은행용 단말기는 지난 해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했을 만큼 킵스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근래들어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인식이 활발해지고 부가가치통신망이 새로운 네트워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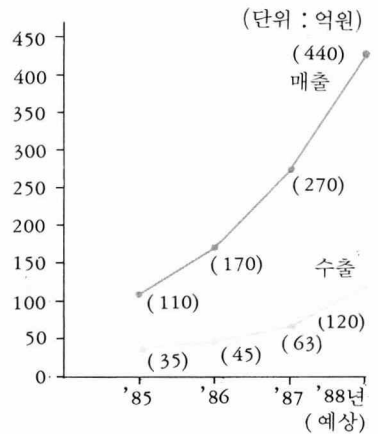
부가가치통신망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신중 유망사업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라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고 있는 사업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킵스는 올 해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에 착수했다. 머지않아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하여 지난 해 11월 미국의 텔리넷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허용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각종 통신장비의 판매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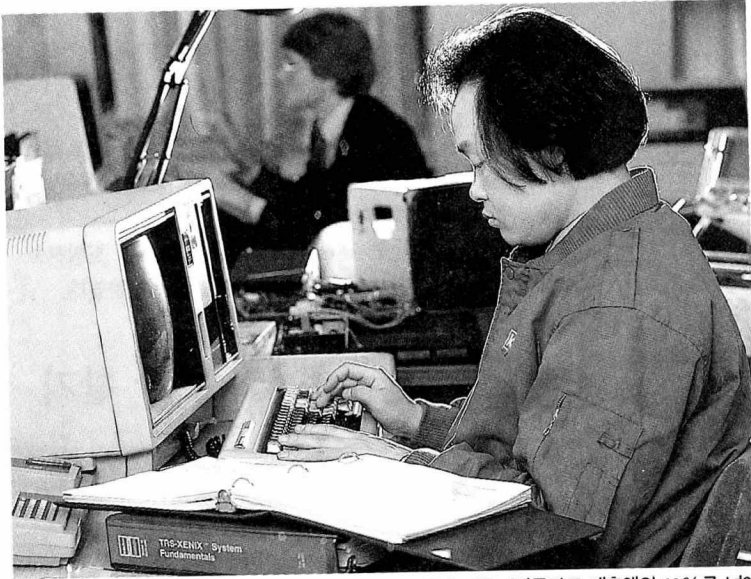
부가가치통신망과 아울러 이탈리아 올리베타사와 도입계약을 맺은 은행용 단말기에 퍼스컴 기능을 부가하여 체신부 읍·면 단위 우체국 전산화용 워크스테이션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또한 국내 네트워크 분

매출액 및 수출증가 추이



야 중 가장 관심이 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도 기기 공급업체로서 적극 참여할 방침인데, 행정전산망에는 워크스테이션의 규격 및 가격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금자동인출기 수요에 대비해서도 미국 디볼디사로부터 제품을 도입, 새로운 금융 전산 품목으로 추가했는데 기존 현금자동인출기가 은행 설치에 국한되고 있



▲ 킷스는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도 매출액의 10%를 넘어서었다.

는 범위를 벗어나 비금융기관 장소에 자체적인 서비스로 보급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으로 성공한 킷스는 자산 2백 50억원에 종업원 7백 50명 규모로 우리나라 정보기업체 중 상위권에 올라 있다.

85년 1백 억원의 외형을 넘어 선 이래 킷스는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 곡선을 그려 지난 해 2백 70억원의 총 매출을 기록했다. 이의 상당량은 수출에서 얻고 있는데 지난 해는 23%가 해외시장 판매였다.

올 해는 지난 해보다 60% 증가한 4백 40억원의 외형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도 1백 20억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미국에 지사를 두는 등 꾸준한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을 경주해 온 킷스는 86년 7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중견수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출품목은 인텔리전트 터미널과 인쇄회로기판, 터미널은 8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덴던과 모토로라사에 대당 3백달러에서 5백달러의 좋은 가격으로 내보내고 있다. 인쇄회로기판은 어

### 주요사업

	제 품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프레임, 슈퍼미니컴퓨터</li> <li>• 텐덤 논 스톱 시스템</li> <l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li> <li>• 모토로라 시스템 2000, 8000/MDS 시리즈 21</li> </ul>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용 단말기</li> <li>• ISC 피너클 시스템</li> <li>• 올리베타 시스템</li> </ul>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 통신망(VAN)</li> <li>• 텔리넷 시스템</li> <li>• 현금자동지급기(CD)</li> <li>• 디볼드 1060</li> </ul>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판매시점 관리)</li> <li>• 자동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UNIT)</li> <li>• 퍼스컴</li> <li>• 기타</li> <li>• 표자동발매기(TIM)</li> <li>• ACI 소프트웨어 패키지</li> </ul>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백 및 컬러 그래픽 터미널</li> <li>•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li> <li>• 인쇄회로기판</li> </ul>

셈블리 형태로 미국의 디스플레이사와 제이테크사, EDS사 등으로 20여종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새로 4층 이상의 다층인쇄회로기판도 수출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말 구미 제2공장을 준공시킨 바 있다.

제2공장 가동으로 연간 1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물량을 감당할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킷스는 비교적 일찍 82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연구소는 소프트웨어팀과 하드웨어팀이 있어 소프트웨어팀에서는 한글 오퍼레이팅 시스템, 코드, 신규도입기기 관련기술을, 하드웨어팀에서는 중앙처리의 기술개발을 담당한다.

이 외에 준연구원이 있어 이들은 툴링, 모니터, 스위칭파워서프라이 등 연구원이 하지 않는 응용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다.

킷스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개발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도입된 기술의 자체 흡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국 제품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기술도입 계약도 첨가시켜 이를 응용,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성과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용 단말기의 국산화·킷스가 지난 해 은행용 단말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산화의 힘이 크게 뒷받침됐다.

지난 86년으로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액 대비 10%를 넘어선 킷스는 해외 거래선이 갑자기 끊겨 사업이 주춤했던 지난 한 때의 기억을 교훈삼아 새로운 유망사업의 추가와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정진, 외풍에도 든든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기대해 본다. ■